

# 아파트 입주 늘고 단독주택 수요 줄고

### 지난 2011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단독주택 전월세전환율 7%대 진입

전국 단독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처음으로 7%대에 진입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전월과 같은 6.4%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전월과 같은 4.7%다.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6.3%, 7.9%를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시하는 전월세전환율 현재 상한선은 4.75%다.

전월세가격 안정세로 전월세전환율이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신규아파트 증가로 비아파트 전월세 수요가 감소해, 비아파트 전환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독주택 전환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9월, 지난 2011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7%대에 진입했다.

시도별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이 5.4%로 최저, 경북이 9.5%로 최고를 기록했다.

시도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이 4.1%로 가장 낮고 전남이 7.6%로 가장 높다. 분석가능한 대상 132개 주요 시군구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포천시 가장 높은 7.6%로 가장 낮은 서울 송파구(3.6%)와 4.0%포인트 차이

났다.

서울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은 송파구가 3.6%로 최저, 금천구가 4.6%로 최고치를 보였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소형이 5.1%, 중소형은 4.3%로 소형의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립·다세대는 서울이 4.9%로 가장 낮고 충북이 11.3%로 가장 높다. 단독주택은 서울이 6.6%로 최저 경북이 11.6%로 최고로 나타났다.

/뉴스시스



### 향토기업 하림 '백제역사 바로알기 앞장설 것'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를 우리 고장에서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는 최근 공주 고마 컨벤션홀에서 충남도와 전북도를 비롯한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등 백제유적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약을 맺은 백제문화 서포터즈와 관련해 "하림이 백제역사 바로알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 대표는 백제문화유산 서포터즈 사업의 일환으로 "하림과 함께하는 백제역사 바로알기 캠프"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패자로 잃어버린 왕국(王國)이 된 백제의 문화유산

이 뒤늦게나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전북도와 충남도, 익산시 등 관련 지자체, 하림 등 기업들이 문화유산 보호 및 홍보에 앞장서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백제문화 유산의 중심에 있는 하림이 2018년부터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박2일의 백제역사 바로알기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서포터즈 참여 의미를 밝혔다.

특히 백제 700년 역사의 중심이 부여와 공주, 그리고 익산인데 이중 유일하게 왕궁터가 발굴된 곳이 바로 익산 왕궁인 만큼 익산, 전주권에 대한 재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산=정영원 기자

## JB금융, 당기순이익 835억원 달성

###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 견실한 대출 성장·수익성 개선

JB금융그룹은 2017년 3분기 당기순이익이 835억원, 누적 2417억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누적) 28.5% 증가한 수치다.

자회사별로 은행계열 순익은 견실한 대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인수한 자회사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순익(91억원)을 반영한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684억원, 분기중으로는 243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은행은 누적 기준 32.4% 증가한 1277억원, 분기중 431억원을 달성했다.

비은행계열인 JB우리카피탈의 3분기 연결 당기순이익도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602억원, 분기중 2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핵심 지표인 순이자마진

(NIM) 개선과 견실한 대출 성장에 따른 이자부자산의 지속적인 증가, 경상적인 대손비용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룹기준 잠정 보통화 자본비용도 3분기 말 현재 8.58%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그룹 순이자마진은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2.47%(은행 합산 2.27%)를 기록했고, 경영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은 49.9%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건전성 지표인 그룹 연체비율과 고정이자 여신비율도 각각 전분기 대비 0.09%포인트, 0.06%포인트 하락한 0.91%와 0.96%로 개선됐다.

대손비용률도 0.34%로 종전 대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 결과 총자산순수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각각 0.69%와 9.68%를 기록했다.

/김민근 기자

## 코레일, 고속열차 대형사고 대응 합동훈련 시행

코레일(사장 직무대행 유재영)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동양지역에서 고속열차 대형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재난 대비 범국가적 총력 재난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훈련은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용산역으로 가던 고속열차가 동양지역을 진입하던 중 규모 6.5 지진으로 탈선,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시행했으며, 사고 상황 관계기관 전파, 열차통제 안전조치, 초기대응팀 긴급 출동 및 현장 통제, 신속한 고객대피, 사상자 구호, 화재진압, 비상수송대책 및 열차 구원, 철도시설 복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유재영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코레일 초기대응팀, 철도사법경찰대, 익산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국립중앙의료원,

원광대병원, 제9585부대, 삼포제일웨이, 전라선철도(주),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코레일 관광개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명, 고속열차와 기동차, 닥터헬기, 소방차, 119구급차, 경찰차 등의 장비도 동원됐다.

특히, 코레일이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위촉한 철도안전지킴이 50명과 어린이 체합단 60명이 참여해 합동훈련의 의미를 더했다.

코레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으로 신속한 열차 재난 현장 진화 및 초기 복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시나리오 매뉴얼화 △일반국민 직접 참여로 비상대응 체득과 할 계획이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코레일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치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할 것이다"며, "이번 훈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새롭게 개통하는 경강선 고속열차의 안전 운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가족이 노후부양 책임 응답률 67.3→35.7% 낮아져

65세 이상 노년층중 노후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1인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노후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률은 2006년 67.3%에서 2014년 35.7%로 떨어졌다.

'부모 스스로 해결'은 13.7%에서 23.8%로 높아졌고 정부와 사회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4.0%에서 6.4%로 높아졌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하는 응답률도 14.9%에서 35.7%로 높아졌다.

반면 노인중 79%는 향후 성인지와 동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 1인 가구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비교적 젊은 노년인 70~74세 1인 가구의 78.3%가,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의 91.3%가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1인 가구이다.

대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년 이상 길기 때문에 여성 노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노령층 1인 가구의 경우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설 명했다. 여성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

은 탓이다.

또 노년층 1인 가구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생활 상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사회 관계망의 약화 등 다방면에서 여타 연령층의 1인 가구보다 훨씬 취약하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험 역시 1인 가구(9.6%)가 다인 가구(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방치나 고립 및 단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